

[부록]

《표준국어대사전》 정보 수정 내용

2015년 3분기

표제항 (가나다순)	수정 전	수정 후	비고
개 <sup>13</sup>	((일부 동사 뒤에 붙어) '사람' 또는 '간단한 도구'의 뜻을 더하고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. ㉠{오줌 싸개}/{코흘리개}/{날개}/{뉘개}/{지우개}.	「1」 ((일부 동사 어간 뒤에 붙어) '그러한 행위를 하는 간단한 도구'의 뜻을 더하고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. ㉠{날개}/{뉘개}/{지우개}. 「2」 ((일부 동사 어간 뒤에 붙어) '그러한 행위를 특성으로 지닌 사람'의 뜻을 더하고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. ㉠{오줌 싸개}/{코흘리개}.	뜻풀이 추가
구어 <sup>01</sup>	글에서만 쓰는 특별한 말이 아닌, 일상적인 대화에서 쓰는 말. ㉠ 구두어 · 입말	「1」 글에서만 쓰는 특별한 말이 아닌, 일상적인 대화에서 쓰는 말. ㉠ 구두어 · 입말. 「2」 =음성 언어.	
글밭	「1」 적어 놓은 글. 「2」 써 놓은 글자의 생김이나 형식. 「3」 『언어』 =문맥.	「4」 읽는 이로 하여금 그 글에 공감하거나 수긍하게 할 수 있는 글의 힘. ㉠{글밭이} 세다/{글밭이} 있다/{글밭이} 좋다 /나는 소싯적에 {글밭께}나 날렸다.	
급 <sup>06</sup>	-	-급06(級)「접사」 ((일부 명사 앞에 붙어) '그에 준하는'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. ㉠{사장급}/{전문가급}/{재벌급}/{국보급}	표제어 추가

표제항 (가나다 순)	수정 전	수정 후	비고
국문학자	-	국문학-자(國文學者)[공--자] 「명사」 국문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..	표제어 추가
끝부분	-	끝-부분(部分)[끝뿐-]「명사」 「1」 물체의 끝 쪽에 있는 부분. 「너무 바짝 철조망 겉으로 붙어 걸어서 바깥쪽으로 흰 철조망의 (끝부분이) 그만큼 시야를 가려 버린 탓이었다. 《이문열, 변경》 「2」 어떤 일이나 형식, 상황 따위의 끝을 이루는 부분. 「순조롭게 진행된 연극이 1막 (끝부분에) 가서 덜컥 걸려 버렸다. 황 씨가 엉겁결에 2막에서 해야 할 대사를 불쑥 외어버린 것이었다. 《최인호, 지구인》/ 음악은 4악장의 뒷부분이었다. 봄, 여름, 가을이 지나고 겨울의 (끝부분을) 가고 있었다. 《이상문, 황색인》.」	표제어 추가
냐	((‘이다’의 여간, 받침 없는 형용사 어간, ‘ㄹ’ 받침인 형용사 어간 또는 어미 ‘-으시-’, ‘-었-’, ‘-겠-’ 뒤에 붙어))해라할 자리에 쓰여, 물음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.	((‘이다’의 여간,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‘-으시-’, ‘-었-’, ‘-겠-’ 뒤에 붙어))해라할 자리에 쓰여, 물음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. 주로 구어에서 쓰인다.	문법 정보 수정
남모르다	형용사	동사	품사 정보 수정
노리스라 가디아법	노리스라가디아법	노리스라관디아법	표제어 수정

표제항 (가나다 순)	수정 전	수정 후	비고
당신 <sup>02</sup>	「1」 듣는 이를 가리키는 이인칭 대명사. 하오할 자리에 쓴다. 「2」 부부 사이에서, 상대방을 높여 이르는 이인칭 대명사. 「3」 맞서 싸울 때 상대방을 낮잡아 이르는 이인칭 대명사. 「4」 '자기 <sup>03</sup> [II]'를 아주 높여 이르는 말.	「1」 듣는 이를 가리키는 이인칭 대명사. 하오할 자리에 쓴다. 「2」 부부 사이에서, 상대방을 높여 이르는 이인칭 대명사. 「3」 문어체에서, 상대방을 높여 이르는 이인칭 대명사. 「(당신) 꼭 알아야 할 사실들/ {당신의}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. 「4」 맞서 싸울 때 상대방을 낮잡아 이르는 이인칭 대명사. 「5」 '자기 <sup>03</sup> [III]'를 아주 높여 이르는 말.	뜻풀이 추가
답다 <sup>01</sup>	((일부 명사 뒤에 붙어)' 성질이 나 특성이 있음'의 뜻을 더하고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. 「{꽃답다}/ {남자답다}/ {사람답다}/ {정답다}/ {참답다}/ {선생님답다}.	((일부 명사 또는 명사구 뒤에 붙어)' 성질이나 특성이 있음'의 뜻을 더하고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. 「{꽃답다}/ {남자답다}/ {사람답다}/ {정답다}/ {너답다}/ {우리 {엄마답다}.	문법 정보 수정
로페 드베가	로페 드베가	로페 데베가	표제어 수정
리딩조키	리딩^조키	리딩^자키	표제어 수정
문어 <sup>02</sup>	일상적인 대화에서 쓰는 말이 아닌, 주로 글에서 쓰는 말.	「1」 일상적인 대화에서 쓰는 말이 아닌, 주로 글에서 쓰는 말. 「2」 =문자 언어.	뜻풀이 추가
산 <sup>08</sup>	((지역을 나타내는 말 뒤에 붙어) 거기에서 산출된 물건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. 「{한국산}/ {제주산}/ {국내산}/ {외국산}/ {멕시코산}.	((주로 지역 또는 연도를 나타내는 말 뒤에 붙어) 거기에서 또는 그 때에 산출된 물건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. 「{한국산}/ {제주산}/ {국내산} / {외국산}/ {멕시코산}/ 정부는 품질이 떨어지는 {1998년산} 쌀을 사료용으로 공급하였다.	뜻풀이 수정

표제항 (가나다 순)	수정 전	수정 후	비고
슬다 <sup>02</sup>	「2」 곰팡이가 생기다. ㄱ식빵에 곰팡이가 {슬다}/장마 때 비가 새어 벽에 곰팡이가 {슬었다}.	「2」 곰팡이나 곤충의 알 따위가 생기다. ㄱ식빵에 곰팡이가 {슬다}/장마 때 비가 새어 벽에 곰팡이가 {슬었다}/여자는 시누이 말에 서캐가 하얗게 {슬} 남편 머리칼을 보고 비시시 웃는다. <박경리, 시장과 전장>	뜻풀이 수정
앞축	-	앞-축 [앞축만[압축-]] 「명사」 「1」 발바닥에서 발뒤꿈치를 들었을 때 땅에 닿는 부분. 「2」 신이나 양말 따위의 「1」이 닿는 부분. ㄱ걸음걸이가 비뚤어져 운동화의 오른발 [앞축]에 유난히 닿았다.	
에서야 <sup>01</sup>	-	에-서야「조사」 ((시간을 나타내는 체언이나 부사어 뒤에 붙어) ‘그때가 되어 비로소’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. ㄱ“…… {엇저녁 에서야} 왔는데 내월 스무날 배편이 있다니까 오늘내일 이래도 떠나야 되겠어요.” <유진오, 화상보>/토리도 봉당에 었드려 한 나절씩 잠을 자더니 {지금에서야} 엄마 눈치를 살피며 어슬렁 어슬렁 뒤곁으로 돌아가는구나. <전상국, 지빠귀 둥지 속의 빠꾸기>	표제어 추가
에서야 <sup>02</sup>	-	에서-야「조사」 격조사 ‘에서 <sup>02</sup> ’에 보조사 ‘야 <sup>01</sup> ’가 결합한 말. ㄱ사실은 엑스레이 시설을 갖춰 심전도도 관찰해야 원칙인데, 어디 이런 {소음에서야} 엄두를 낼 수 있습니까. <김원일, 불의 제전>	

표제항 (가나다 순)	수정 전	수정 후	비고
워낙에	-	워낙-에「부사」 「1」=워낙「1」. 『1』글쎄, {워낙에} 별별 사람들이 다 모였으니 단결이 쉽게 될까 모르겠소. <<황석영, 객지>>그들은 멩구미 섬을 돌아 나갔는데, {워낙에} 바위를 때리는 물결이 거세어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였다. <<황석영, 장길산>> 「2」=워낙「2」. 『1』{워낙에} 착하신 분이라 괴로운 것도 아프신 것도 잘 참으셨사와요. <<한무숙, 만남>>선홍이가 어둠 속에서 닥치는 대로 총대를 휘두르는데, {워낙에} 도적들이란 형세 판단에 빠르리라 뽕뽕이 흩어져서 섬의 언덕을 넘어갔다. <<황석영, 장길산>>	표제어 추가
이크	「1」 → 이키 <sup>01</sup> . 「2」 『북』'이키 <sup>01</sup> '의 북한어.	「1」 몹시 놀라거나 뜻밖의 상황을 접하였을 때 갑자기 나오는 소리. 『(이크), 이거 큰 일났다』고 허겁지겁 뛰어갔다. 두 번이나 고꾸라지면서. <<채만식, 소년은 자란다>> 「2」 남을 슬쩍 추어주면서 비웃을 때 내는 소리.	북한어를 남한어로 돌림
한 <sup>01</sup>	「1」 ((일부 단위를 나타내는 말 앞에 쓰여)그 수량이 하나임을 나타내는 말. 「2」 '어떤'의 뜻을 나타내는 말. 「3」 ((수량을 나타내는 말 앞에 쓰여)'대략'의 뜻을 나타내는 말.	「1」 ((일부 단위를 나타내는 말 앞에 쓰여)그 수량이 하나임을 나타내는 말. 「2」 '어떤'의 뜻을 나타내는 말. 「3」 '같은'의 뜻을 나타내는 말. 『(한) 경기장/전교생이 (한) 교실에 모여 특강을 들었다./동생과 나는 (한) 이불을 덮고 잔다. 「4」 ((수량을 나타내는 말 앞에 쓰여)'대략'의 뜻을 나타내는 말.	뜻풀이 추가